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모스크바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

이 상 준**

1. 서론

제정 러시아와 소련은 강한 통치자가 군림하는 국가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체제전환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국가와 다르게 현대 러시아 국가는 입헌주의 국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다음 새롭게 지도자가 된 푸틴은 러시아 역사상 자주 발견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통치자와 엘리트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어떤 국가였는지를 규정하는 연구들은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많지 않았다. 러시아 일반 시민들의 태도, 가치, 행동은 국가 변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일반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통치자와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단순화하여 시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처럼 통치대상으로서의 시민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를 자신들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 재구성하게 된다.¹⁾ 러시아인들은 소련의 철권통치시기에도 계획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여러 결정들의 총합에 의하여 국가를 받아들였다.

소련에서는 국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만일 ‘계획경제’라

* 본 논문은 2013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본 논문에 사용된 설문조사에 같이 했고 자료 사용을 허가해 준 류혜정 변호사(범무법인 지평지성), 최우익 교수(한국외대)에게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러시아학과 교수.

1) 제임스 C. 스콧(2010) 참조.

는 개념을 모든 구성 요소가 단일한 리듬에 따라 조정되고 조절되며, 갈등이 최소화되고, 무엇보다 예측을 바탕으로 경제적 결정이 내려지는 경제로 이해한다면, 소련 경제는 결코 계획경제가 아니었다.²⁾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말의 혼란에서 벗어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러시아에는 다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때마침 러시아 경제상황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국가의 강력한 통치력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마침 푸틴이 2012년 재집권하는 과정은 처음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느껴진다. 2008년 푸틴이 퇴임할 당시 그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총선전후로 러시아 정국은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푸틴 3기가 출범한 둘째 해인 2013년에도 반푸틴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푸틴의 재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가 재집권을 한 이후에도 푸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과 그의 집권세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서도 국가를 오래도록 통치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강하게 느껴졌던 국가가 일순간에 붕괴되거나 해체되는 경험을 볼셰비키 혁명과 소련 해체로 이미 두 차례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원인을 본 연구는 러시아인들의 흥미로운 국가인식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인들은 소규모 노동조합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의 논리를 결정하면서도 표면적으로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동기부여가 되었다.³⁾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권위주의 국가 혹은 강력한 규제 국가의 현상을 일반 러시아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러시아인들은 제정시대와 사회주의 시기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하였던 국가를 무너뜨리고 두 번에 걸쳐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물론 소련의 해체과정은 혁명의 과정과는 달랐지만 1991년 8월의 쿠데타를 몸으로 막아냈던 모스크바 시민들과 러시아 국민들이 결국 소련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2) 토니 클리프(2011) 참조.

3) Ashwin(1999), Ledeneva(1998), Solnick(1998) 참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2007년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획득한 자료를 통하여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러시아들이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축으로 한 역사적인 접근과 하나의 공간과 시점에서 얻어진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동시에 시도하고자 한다. 러시아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국가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를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흔하게 표출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사속에서 러시아인들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오늘날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보다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국가의 변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모스크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역사와 오늘날 각종 문헌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국가의 의미가 어떻게 단순화되어 인식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설문에 필요한 가설을 만들 것이다. 제 3장에는 러시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고 모스크바 시민들을 상대로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상관분석, 분산분석 등으로 러시아인들이 실제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 5장은 결론이다.

2. 역사와 현재적 상황에서 나타난 러시아인의 국가인식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는 국가를 근대국가, 복지국가, 규제국가, 발전국가, 약탈국가, 실패국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기술방식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의, 더 정확히는 역사 책 속의, 국가의 모습이 사회적 유기

체처럼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 또한 국가의 모습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몰락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국가 이후 신자유국가의 출현 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화하여 그린 것이며 또 이렇게 단순화한다면 국가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단순화하는 것은 근대화이후 가장 두드러진 국가의 묘사방식이었다. 물론 캐리커처 그리듯이 국가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정확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국가를 분석하는 방식과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국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 기능의 변화 등을 엄밀하게 추적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도 국가를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 권력의 관점에서 묘사된 러시아 역사상의 국가도 하나의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 왔다. 러시아의 공간에는 다양한 특징으로 규정지어진 국가들이 존재하였다. 역사는 내전시기 국가, 혁명기 국가, 스탈린의 국가, 스탈린 이후 국가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국가를 서술하고 있다. 통상 서유럽에서 근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담고 출현하였지만 러시아 역사에서는 국가에 국민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페트로프(2006)는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달리 보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계급, 서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를 규제해야 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였다.⁴⁾

제정 러시아 이후 소련을 거친 러시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는 절대주의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다소 수동적인 국민들로 묘사되었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 반응적인 국민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민 역시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국가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이해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 책속에서 러시아인들은 국가를 단순화하여 인식하였는데 개인의 삶에서 국가는 규제하려는 국가와 베푸는 국가로 크게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 공간에서 역사적 삶의 경험이 남겨준 것이다.

4) Petrov(2006), 166-170; 정한구(2009), 24에서 재인용.

19세기말 제정 러시아 시기 러시아인들은 짜르를 국가와 동일시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인구의 대다수인 농노들은 미르에 소속되었고 토지를 분할하여 경작을 하였으며 일정기간 농사를 지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기능하였다.⁵⁾ 그래서 미르의 운영방식을 관찰한 러시아 포퓰리스트들은 미르가 러시아내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미르의 실제 작동은 이와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미르의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나누어 부담지우기 위하여 농노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⁷⁾ 국가는 미르를 통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며 강력한 중간 계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수입은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⁸⁾ 국가에서 농노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컸지만 이와는 달리 일반 러시아 농노들의 일상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의미가 컸다고 할 수는 없었다. 러시아 농노 사바 푸를렙스키의 수기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국가에 대한 인식은 찾을 수가 없었다.⁹⁾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짜르를 국가로서 인식하였다.

짜르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였지만 자비를 하소연할 수 있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1905년 황제에게 고통을 하소연하려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동궁 광장에 모였던 민중들은 짜르를, 아니 국가를 온정적인 객체로 인식하였다. 다음은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니콜라이 2세의 동궁으로 몰려간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짜르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 확신하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청원하였던 내용이다.¹⁰⁾

“우리, 노동자들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 [...] 우리의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무력한 노부모님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려고. 오, 폐하, 당신께 왔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억압받고 있고, 과도한 부역에 시달리며 천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어떤 불만도 없이 가혹한 운명을 겪어야만 하는 노예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전제체제와 무법천지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으며. 오, 폐하, 여력도

5) 따찌야나 짜모쉬나(2006), 35.

6) 이사야 별린(2008), 343.

7) 라자놉스키 · 스타인버그(2011), 643.

8) 사바 푸를렙스키(2011), 21.

9) 사바 푸를렙스키(2011), 21.

10) 존 M. 톰슨(2004), 93-94.

없고 인내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

당신의 명령을 받들 그것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러시아를 행복하고 영광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당신이 [...]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궁정 앞 바로 이 광장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 러시아 국민들은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국민들의 삶에서 국가는 수탈을 위하여 통제하고 규율하는 국가와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자비와 온정을 청원할 수 있는 국가라는 모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였던 시대를 살았던 세계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과 개인의 탄생을 통하여 유럽이 근대화된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과 스탈린에 의한 산업화, 집단화를 거치면서도 지속되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볼셰비키들은 구체제의 권력을 무너뜨렸지만 내전으로 바로 국가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 기간 농민들의 저항의식은 강했는데 혁명 이후 혁명주체와 농민들의 국가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혁명주체의 생각과 다르게 농민들 가운데 일부 세력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마흐노는 볼셰비키의 적군(赤軍)도 반혁명 세력의 백군(白軍)도 아닌 녹군(綠軍)을 자처하면서 중앙의 간섭이 없는 농민 자치를 이루겠다고 반란을 일으킨다. 무정부주의 무장단체는 흑군, 탐보프 반 혁명봉기군은 청군으로 칭해졌다. 여기에 폴란드, 코사크, 각 지역의 부농들의 사병이나 이슬람교 등의 종교적 반란세력까지 겹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직들이 적군에 대항하였다.

레닌은 탐보프, 볼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민 봉기에 관해 언급하면서 백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¹¹⁾ 농촌을 확보하기 위해 볼셰비키는 전시공산주의체제를 채택하였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였던 자본주의 외부세력의 위협을 막는 일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전시공산주의 기본원칙들은 ‘농민의 공출의무, 국유화된 기업의 중앙집권화된 권리, 계급기준과 평등원칙에 기초한 급식과 개인 소비물자의 무료분배, 현물경제를 통한 화폐경제의 해체, 일반노동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¹²⁾

볼셰비키들이 곡식을 비축한 부농들을 징벌하고 곡물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11) 제임스 C. 스콧(2010), 318.

12) 리하르트 로렌쯔(1987), 96.

표면화하면서 농민들에게 국가는 테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농민에게 강제공출에 대한 의무가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에는 국가가 농민의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부농과 빈농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작지를 줄이면서 차출당할 잉여농산물의 양을 적게 하였다. 그 결과 곡물수확량은 1913년 7천8백20만 톤에서 1920년 4천8백20만 톤으로 대폭 줄어들었다.¹³⁾ 도시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1921년 페트로그라드의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¹⁴⁾

“제작소와 공장은 들끓었고 노동자들은 상황을 토론했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요구는 주로 단속반의 폐지, 자유식(음)료시장의 모든 제단철폐로 모아졌다, 노동자들은 볼셰비키 연설자들이 공장에서 발언 못하도록 했다. 길거리에서 볼셰비키 간부가 차에서 끌어내려져 몽둥이로 위협을 당했다. 2월 20일에는 이 운동은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신경제정책을 시작하면서 줄어들었다. 그러나 스탈린에 의하여 추진된 산업화와 집단화로 국가와 국민들의 충돌은 다시 시작되었다. 신경제정책기간 농산물의 조달가격이 시장가격의 1/5로 폭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저항은 다시 커졌으며 결국 국가는 식량징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화를 지시하게 된다. “집단농장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곡물징발을 증대하고 시장에 대한 농민의 곡물 출하 거부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은 농민들이 볼 때 처음부터 명약관화했다. 왜냐하면 1929년 겨울에서 1930년까지의 집단농장 추진은 곡물징발을 두고 국가와 농민 사이에 2년 넘게 벌어진 극심한 투쟁이 누적된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스탈린의 집단농장화 방식들이 여러 측면에서 농민들에 대한 군사 봉건주의적 압제를 부활시켰다”¹⁶⁾는 의미에서 집단화는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농민들의 반응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교활한 비즈니스다. 처음에 당신들은 땅을 넘겨주었지만 이제 마지막 낱알 하나까지 곡물을 빼앗아간다. 당신도 그와 같이 땅에 목숨이 걸릴

13) 리처드 파이프스(2006), 75.

14) 리하르트 로렌즈(1987), 100.

15) Fitzpatrick(1996), 4; 제임스 C. 스콧(2010), 320에서 재인용.

16) Pokrovsky(1995), 39; 김상현(2010), 9에서 재인용.

수도 있다! 농민은 땅위에서 지평선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당신은 누구를 우롱하는가?”¹⁷⁾ 그러나 저항은 조직화되었다기보다는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김남섭(2004)은 “노동자들이 무단결근, 음주, 작업장 취침, 근무지 이탈 등 해이해진 노동 규율로¹⁸⁾, 농민들은 집단 농장과 강제 곡물 징발 거부, 가축 도살, 허위 보고 등으로 저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⁹⁾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도 개인의 삶이 국가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비극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스탈린시기를 살았던 소련인민들은 국가를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제도로서 이해하였다.

산업화, 집단화, 2차 대전의 광풍노도시기를 거친 소련인들은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 그야말로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테러와 임의의 법집행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와 물질을 통하여 사회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로써 사회 통제를 달성하고 정치 안정을 얻기 원하였다. 테러를 대체한 국가의 권력집단과 사회 구성원 간 <사회 계약>은 국가와 시민 사회 간 긴장도를 낮추어 주었다. 사회계약은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를 거치면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대신 정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암묵적인 계약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의하여 스탈린 사후에도 일반적으로 소련 시민들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들은 국가를 여전히 강제하는 제도로서 또 억압하는 기구로서 인식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억압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온정주의적인 시혜국가라는 인식도 강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²¹⁾ 소련의 이러한 사회통제 방식은 국가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대항하여 사회적으로 숨 쉴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통제하는 강력한 권력의 국가를 훼손시키는 비공식 경제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한 소련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현상이었고 ‘블라트’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알료나 레데네바(Alena Ledeneva)는 소련시기에도 소련인들은 블라트를 활용하여 공

17) Platonov(1978); 제임스 C. 스콧(2010), 320에서 재인용

18) Filtzer(1986); 김남섭(2004), 5에서 재인용

19) 김남섭(2004), 5.

20) 솔제니친(1998), 209-218.

21) Ludlam(1991), 284-312.

급이 부족한 재화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으며 또 재화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순서를 뛰어넘어 덜 기다리고 필요한 물자를 손쉽게 얻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해당되는 재화는 구두에서 의약품, 자동차, 아파트까지 다양했으며, 부족한 모든 재화들을 획득하는데 블라트의 유용성은 높았다.²²⁾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산은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

“분배와 배급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였다.”²³⁾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의 큰 틀을 단숨에 깨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의 공적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거나 무마시키는 비공식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블라트를 통한 주고받기 식의 활동들이 소련시기 내내 활발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은 비록 거대 구조에 압도되어 공식제도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복리를 위해서는 공적 제도를 무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하부 체계에서도 확인된다. 소련시기 노조는 임금 결정에서의 발언권을 잃었고 단체 협약권이 폐지되는 등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노동계급은 성과급, 경쟁, 테일러주의의 등의 기제에 의해 원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 이전의 자유 박탈, 근무기록부의 도입, 억압적 노동법 시행 등으로 인해 노동권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받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가 및 당 엘리트로의 충원, 교육 및 복지 기회의 대대적인 확대 등을 통해 소련 사회 내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특히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고등 교육기관 진학에서 특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라는 제도가 소련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을 주는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²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제가 작동하였다. 행정적인 명령에 따라 졸업생들에게 직장이나 직업을 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지만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지역단위 청소년

22) Ledeneva(2000), 187.

23) Ledeneva(2000), 188.

24) 노경덕(2012), 402, 405.

직업소개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신규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행정 명령보다는 기업이 구직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⁵⁾ 이 또한 국가가 일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창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명목상 실업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소련인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강하게 억압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국민들이 권력에 기대어 온정적인 시혜를 얻고자 노력하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시스템은 국가와 경제 및 사회 영역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았다. 국가 시스템이 강하게 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은 국가의 제도적 조건에 기대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반면에 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이 곧 붕괴할 것을 인지하면서 개인의 기회주의 행위는 증가하였고 심지어 국가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²⁶⁾ 더욱이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경제적 상황은 이러한 비틀린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시킨다. 이처럼 전제군주제와 사회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러시아인들은 독특한 국가 인식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에도 러시아인들의 국가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러시아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은 쿠즈바스 탄광 지역의 광부들을 참여 관찰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아주 작은 단위의 탄광 작업조에서도 집단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으며 사라 애시윈(1999)은 러시아인들의 노동조합 사례를 통하여 집단주의 가치관이 지배 가치관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⁷⁾

알료나 레테네바(1998, 2013)의 연구에서도 제도로서 국가가 실패할 경우 개인들이 블라트와 연줄을 통하여 제도의 실패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²⁸⁾ 집권 1기와 2기시기 푸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

25) 이상준(2005) 참조.

26) Solnick(1998) 참조.

27) Ashwin(1999) 참조.

28) Ledeneva(1998), 레테네바(2013) 참조.

었던 러시아인들이 푸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 트라이즈만(2010)은 흥미로운 해석을 더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늘 경제적 성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인들의 정치적 지지가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⁹⁾

따라서 제정 러시아와 소련을 관통하면서 러시아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러시아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단순화하여 거칠게 재단한다면 그야말로 통제와 규제로서의 국가와 온정과 시혜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규제와 통제의 국가는 온정과 시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온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 국가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물적인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권위주의 국가 현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러시아인들은 국가를 자신들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 규제, 억압하는 국가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강한 권력에 기대어 온정을 호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권위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통제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시혜를 더욱 추구하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은 공권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3. 연구조사방법

3.1. 변수의 조작 정의 및 측정방법

러시아인들은 제정러시아시기,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서구의 다른 국가와 달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물론 러시아 전역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몇 단계의 기간을 나누어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보다 정확하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29) Treisman(2010).

모스크바 지역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서는 국가가 억압적인 강력한 규제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와 시혜를 베푸는 온정적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규제하려는 강한 국가에 대한 기대치는 공권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국가이다. 첫 번째는 변수는 ‘규제 국가’로 명명하고 ‘개인 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국가의 이용 제약이 가능한 것인지’, ‘생활필수품 등은 시장재화이지만 국가가 가격 규제를 해야 하는지’, ‘러시아내에서 외국자본의 활동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지’, ‘독점자본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가격 담합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거나 개입해야 하는지’ 등 모두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변수는 ‘복지국가’로 명명하고 ‘연금재정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하는지’,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 ‘퇴직하거나 실업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국가가 국민들의 고등 교육기회 제공을 늘려야 하는지’ 등 모두 4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응답을 얻었다.

설문문항은 규제 국가에 대한 인식 혹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와 복지 국가에 대한 인식 혹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에는 7점 리커트(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모두 비율척도로 사용되었다. 설문문항에는 1 “전적으로 반대함” 4 “중간임” 7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하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지 문항에는 개인특성 변수들도 포함하였다. 설문문항 가운데 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개인특성변수는 성, 나이, 학력, 직업, 소득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2. 표본추출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이중 국가에 대한 인식과 개인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모두 17개로 구성되었다. 즉 9개 설문문항은 개념적으로 처음부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어로 먼저 작성된 설문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박사과정으로 수학중인 러시아인 학생에 의하여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으며 문항의 일부분은 러시아 현지여론조사기

30) 본 설문조사에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내용 등은 최우익·류혜정·이상준(2009) 참조.

관인 레바다(Levada) 조사센터와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레바다 조사센터 31명의 조사원들이 모스크바 시내에 임의로 선정된 51개 거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출퇴근시간대에, 그리고 주말에는 모든 시간대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6일에서 22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다소 오래되었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이며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 시기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던 시기였으며, 반면 경제성장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규율하는 규제 국가와 시혜를 베푸는 국가로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추가적인 설문조사는 예산 제약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총 601명의 러시아 국민이 설문에 응답을 했으나 설문지에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594명의 설문자료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린 응답자는 18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59세였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는 10대가 21명(3.5%), 20대가 164명(27.6%), 30대가 134명(22.6%), 40대가 159명(26.8%), 50대가 116명(19.5%)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1:49였으며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들이 전체에서 72.9%를 점유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4.1. 측정변수의 신뢰 및 타당성 검증

분석방법은 설문결과를 가지고 먼저 통제하려는 규제 국가와 시혜를 베푸는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요인 분석하여 통제하려는 규제 국가와 시혜를 베푸는 국가의 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골라내어 이들 변수내 측정치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크론바흐(Cronbach) 알파방법을 통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분석방법은 동일한 변수로 묶을 수 있는 설문항목들의 측정치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변수로 사용되어도 좋은지

를 보여준다. 국가인식 변수들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변수로 인식하는 기준점이 되는 0.6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0.6에 근접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해당 변수에 포함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타당성은 측정된 변수들의 항목들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들 항목들을 가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행하였다. 개별 변수들에 포함된 설문 항목만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신뢰성 분석에서 규제 국가와 복지 국가로 분류된 설문문항들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잡혔다. 다만 모든 항목을 섞었을 경우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세 번째 요인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 개별 변수의 설문문항들이 각각의 변수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당초 모두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 가운데 통제하려는 규제 국가(6개), 시혜를 베푸는 복지 국가(4개), 개인특성 변수(5개) 모두 15개의 설문문항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표 1> 신뢰성분석

변수명	크론바하 알파계수	설문문항	항
규제국가	0.510	2	토지사용규제
		5	가격규제
		12	외국자본 규제
		10*	독점규제
		11*	주주와 채권자 보호
복지국가	0.596	13*	가격담합 규제
		6	연금지원
		7	사회보장지출
		19	생계지원
		20	교육기회제공

* 역척도

4.2.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각각의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량의 평균이 7점에 가까울수록 그러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기술통계량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대다수 모스크바 시민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규제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
규제국가	4.8679	0.93052	594
복지국가	6.5042	0.67090	595

규제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를 비교하는 쌍체 비교분석도 시행하였다. 그리고 성, 직업, 교육수준 별로 구분한 집단 간 규제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한 차이분석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검증에서도 규제로서의 국가보다는 복지로서의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모스크바 주민들에게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3> 복지 국가와 규제 국가에 대한 동의정도 비교 검증

대응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복지국가 - 규제국가	1.63589	0.98487	592	0.000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제도와 통제를 위한 규제 국가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로서의 시혜를 베푸는 국가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거칠게 해석하자면 규제 국가 현상을 오랜 기간 경험해온 러시아 국민들

이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 체제전환 직후 제도로서의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수립에서 러시아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제도가 가진 취약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가 온정적인 시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였다. 1998년 금융위기 직전에 발생한 탄광노조의 시위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4> 변수 간 상관계수

		규제국가	복지국가	나이	ln(월소득)
규제 국가	Pearson 상관계수		.278 (**)	.030	-.084
	유의확률 (양쪽)		.000	.470	.074
	N		593	592	451
복지 국가	Pearson 상관계수			.043	-.074
	유의확률 (양쪽)			.294	.116
	N			594	452
나이	Pearson 상관계수				-.172 (**)
	유의확률 (양쪽)				.000
	N				45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한편 복지로서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치에 배제되어 제도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복지적인 혜택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규제나 제도로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지를 보이기보다는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서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게 됨에 따라 체제전환의 혼란기에 더 많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시장경제에 합당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약하게 되었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규제국가와 복지국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성, 학력, 직업에 따른 규제 국가와 복지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를 분산분석(ANOVA)의 일원배치법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성별, 학력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저학력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와 고학력자들도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 학력별 국가관의 차이와 유의성

구분	표본 수	규제국가	복지국가
전체	593	4.8660	6.5034
중학교 졸업	14	4.1786	6.1429
고등학교 졸업	90	4.9981	6.5361
실업계고 졸업	76	4.8816	6.5362
전문대 졸업	169	4.8748	6.5251
대학 재학/중퇴	40	4.8250	6.3938
대학 졸업	204	4.8522	6.5049
F값		1.936	1.138
유의확률		0.087	0.339

한편 직업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무원과 육체노동자 등 피고용인들이 규제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

치가 높았으며 기업가와 조직의 대표들은 규제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의 성과에서 적은 수혜를 입은 집단인 노동자들이 국가의 강한 개입을 적극 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시장경제 성과로 이익을 본 기업가 등은 국가의 역할에서 강한 개입을 원하지 않음을 제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학생과 실업자가 복지국가 인식에서 있어서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기대치와 정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표 6> 직업별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유의성

	표본수	규제국가	복지국가
전체	593	4.8660	6.5034
기업가	21	4.3492	6.6310
프리랜서	24	4.7569	6.6146
조직대표	18	4.2222	6.4861
전문가	185	4.7721	6.4382
사무원	100	5.1380	6.5550
육체노동자	118	5.0537	6.6335
학생	41	4.7683	6.2439
연금생활자	31	4.8548	6.5403
가정주부	36	4.8796	6.4861
실업자	19	4.7193	6.3553
F값		3.645	1.726
유의확률		0.000	0.080

5. 결론

국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민들이 국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느끼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 하였다. 국가는 엘리트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국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한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시간을 축으로 통치자들은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한다.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기와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국가발전과정이 서구와 달랐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공간에 규제 국가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국가는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거나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의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모스크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인들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모스크바 시민들의 규제 국가와 복지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설문결과는 국가를 통제와 억압보다는 시혜를 베푸는 국가로 더욱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를 러시아 국민 대다수의 지속적인 인식이라고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지적 사회적 인프라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는 수도 모스크바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것이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하였는 지는 늘 의문시되었다. 더 나아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푸틴이 직접 나서서 부패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현상의 한 조각을 이 연구는 설명하고자 하였다.

2007년 권위주의 정권이 높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점에 모스크바 시민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제도화되어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와 인식을 국가에 투영하였다. 여전히 정치에서 소외되고 그에 대항하는 세력을 조직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복지는 당시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제도화가 늦추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하여 운영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통치자의 온정적인 시혜가, 즉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나 사회적 공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줄어들 경우 국가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미 러시아 공간에서 나타난 혁명과 소련의 해체라는 큰 정치적인 사건도 이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당시 제정러시아와 소련은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던 국가였다. 그러나 제정러시아도 소련도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혁명과 해체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현재 푸틴과 그의 정치적 엘리트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권력집권 기간이 늘어나고 그의 권력이 막강하면 할수록 현재 진행해야 하는 개혁은 무엇보다도 제도화에 의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를 배제해나가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제도화된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 혹은 막강한 권력의 국가를 다시 붕괴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푸틴이 가진 막강한 권력은 단지 자신과 주변의 소수 권력자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푸틴이 다시 집권한 2012년 이후 현재 시점의 러시아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아직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푸틴은 집권 3기에 강한 권력을 가지고 제도로서의 국가를 공고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남섭(2004) 「우리안의 스탈린: 스탈린의 테러와 러시아인들의 기억」, 『러시아연구』 14:2, 307-334.
- 김상현(2010) 「숨은 지문의 사회학으로 본 농업집단화와 소비에트 농담민속 (Jokeslore)」, 『슬라브연구』 26:2, 1-38.
- 노경덕(2012) 「서평: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국가자본주의론 분석」, 『서양사론』 114, 401-406.
- 랴자놉스키, 니콜라스 V. · 마크 D. 스타인버그(2011) 『러시아 역사(하)』, 조호연 역, 서울: 까치.
- 레데네바(2013)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이상준 · 남영호 · 류혜정 · 정재원 역, 서울: 한울.
- 로렌즈, 리하르트(1987) 『소련 사회사 I』, 윤근식 · 박형중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별린, 이사야(2008) 『러시아 사상사』, 조준래 역, 서울: 생각의 나무.
- 솔제니친(1998)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영의 역, 서울: 민음사.
- 스콧, 제임스 C.(2010) 『국가처럼 보기』,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 이상준(2005) 「러시아 시장개혁과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8:4, 93-121.
- 정한구(2009) 「푸틴-메드베데프 체제의 출범과 러시아 정치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5:1, 5-34.
- 찌모쉬나, 따찌야나(2006)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역, 서울: 한길사.
- 최우익 · 류혜정 · 이상준(2008) 「러시아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과 태도」, 『슬라브학보』 23:1, 291-322.
- 클리프, 토니(2011)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정성진 역, 서울: 책갈피.
- 툼슨, 존 M.(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역, 서울: 사회평론.
- 파이프스, 리처드(2006) 『공산주의』, 이종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 푸를랩스키, 사바(2011) 『러시아인의 삶, 농노의 수기로 읽다: 러시아 농노 사바 푸를랩스키(1800-1868)의 수기』, 김상현 역, 서울: 민속원.
- Ashwin, Sarah(1999) “Redefining the collective: Russian mineworkers in transition,” in M. Burawoy and K. Verdery(eds.) *Uncertain Transition:*

- Ethnographies of Change in the Postsocialist World*, Lanham &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245-273.
- Filtzer, Donald(1986)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NY: M. E. Sharpe.
- Fitzpatrick, Sheila(1996)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Oxford &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deneva, Alena V.(1998)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Continuity and Changes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in S. Lovell, A. Ledeneva, and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Houndmill: MacMillan Press, pp. 181-204.
- Ludlam, Janine(1991) "Reform and the Redefinition of the Social Contract under Gorbachev," *World Politics*, 43/2 (Jan.), pp. 284-312.
- Petrov, K. Ye.(2006) "Dominirovanie kontseptual'noi mnogoznachnosti: 'sil'noe gosudarstvo v rossiiskom diskurse,"(다의적 개념의 우월성: 러시아에서 '강한 국가'에 관한 담론), *Polis*, № 3, pp. 166-170.
- Platonov, Andrei(1978) *Trans Anthorny Olcott*, Ann Arbor: Ardis.
- Pokrovsky, Nikolai(1995) "Traditions in the History of the Russian Peasantry," in N. Maslova and T. Pleshakova(eds.) *Roots of Russia: Paving the Way*, NY: Nova Science Publishers, pp. 31-40.
- Solnick, Steven Lee(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reisman, Daniel(2010) "Russian Politics in a Time of Economic Turmoil," in A. Aslund, S. Guriev, and A. Kuchins(eds.)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39-57.
- Viola, Lynne(1996)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Oxford & NY: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Lee, Sang Joon**

This study aims at reinterpretation of the strong state phenomenon of Russia from the perspective of ordinary Russians citizens. With understanding of Russians' perception of the state, the paper analyzes the reasons of collapse of the state even though the Russians belong to a powerful imperial state and established socialist state. Historical experiences have shown that Russian perceived the country as either the control state or the beneficiary state because of limited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When political leader's power became extremely strong, Russian are likely to pursue the favor without resistance. However, when strong political elites cannot provide social benefit anymore, Russian have resisted and changed not only political elites but also political regime. This study surveyed to Moscow citizens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s.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 survey data, Moscow citizens prefer welfare state to regulatory one. This may explain why Russia suffered from low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eriod. As a result, Russia ruled by powerful political leader and the personal capability of political leader dominant actor of political scene. In case of economic difficulties, if political leader may not provide social provision to people, then the state could be fallen into a big mess. Thus, while Putin has strong power, the stat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stead of ad hoc basi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3. 10. 25
논문심사일:	2013. 11. 1 ~ 12. 3
심사완료일:	2013. 12. 4